

유한대학교, 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성과공유회 우수상 수상

유한대학교(총장 김현중)는 12월 11일(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 <2023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 성과공유회>에 참가하였다. 유한대학교는 「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 대학」에 선정되어 지난 1년간 전자상거래 분야와 관련된 전문교육(대학) 과정 수강과 실습기회 제공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온라인 커머스 크리에이터 양성, 온라인 스토어 플랫폼 활용, 해외 온라인 쇼핑 시장 진출 등 3개 모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72명의 수료생과 105백만원의 온라인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전국 17개 대학에서 우수 성과를 달성한 소상공인 수료생이 참가하여 온라인 판매 상품을 전시하고,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한대학교는 교육과정 수료생 중 온라인 브랜딩 및 매출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육가공업체 육본담의 김수용 대표가 참가하여 유한대학교 디지털 특성화 대학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총괄한 유한대학교 황규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성과공유회 수상으로 유한대학교가 재학생의 디지털 특성화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의 산학협력 체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